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김성수(동아대학교), 박윤진(부경대학교), 장예린(경북대학교), 박수진 (경북대학교)

2014 SDF

* 연사: 이상철 / Lee Sangchul

* 소속/직함 LG U+ 대표이사 겸 LG 부회장/ CEO, LG U+ / Vice Chairman, LG

* 연설: 나눔으로 잇다/ Bridging by sharing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털 포럼 2014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분들이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Kim Hwan. I am the MC of Seoul Digital Forum

And SBS announcer. Nice to meet you all.

Many people have come today like yesterday. Thank you.

(7 분 30 초)

김환: 올 해의 주제,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라는

주제 하에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열쇠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묻다'라는 주제입니다.

The subject of this year's SDF is about Innovative Wisdom,





Looking for the common good through the technology

And we are solving key of wisdom under the subject.

This session is about 'Asking'

묻다, 이 물으다 와 같은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Asking, it is as same meaning as questioning.

So, I would like to ask you this before the session starts.

ICT 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does ICT means?

예, "알아요"가 여기서 한 두 명 정도가 들리셨네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방송통신 기술입니다.

Yes, I heard that one or two people said YES!,

It is abbreviat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세상과 세상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ITC(ICT), 그리고 한 편으로는 이게 바로소통의 수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와의 교감이 될 수 도 있는 겁니다.

Bridging between people and people, the World and world is important for ICT as well as it can be the means of communication and sharing each other's feeling





통신업계의 역사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상철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겸

부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I'd like to introduce Lee Sang-Chul, Vice Chairman at the LG U+

He is called as a legend of telecommunication.

Let's welcome him!

이상철:

방금 소개 받은 이상철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었는데,

주제가 조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Hello, My name is Lee Sang-Chul.

I was going to be easy with very fun topic in front of you guys,

But I think it is going to be little bit heavy

이것은 6.25 전쟁입니다.

This picture is about Korean War.

60년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16개 나라 120만의 대군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About 60 years ago, when the war started,

16countries from the world with 1.20million soldiers

came to help us save the freedom.





그리고 3년 뒤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남북분단으로 비극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Three years later, It was ended with 5million casualties

And since then, the country divided into half and it was beginning of the agony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2008 년에 있었던 외환위기입니다.

Why was this happened?

This picture is about financial crisis in 2008

몇 사람들의 이상한 파생상품에 의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환위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It was because of the weird derivative products by a few people.

This brought big impact to the world.

1920 년대 경제공황 때보다 더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외환위기로

전 세계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조 달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It was worse than 1920's the Great Depression.

Many people analyzed that 40trillion dollars were gone through this period.

It is two-third of the world's GDP.

60 억 인구로 나누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6 \sim 7000$ 불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If you divided that into 6billion, every people on earth lost 6~7000 dollars.

Unemployment rate in US doubled.

우리의 최대 참사였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This is our big tragedy, Sewol incident.

터키에서도 탄광에서 사고가 일어나 300 여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When coal mine exploded in Turkey, 300people were dead.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묻다 세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Why is this happened?

Today's session is about asking. So I am asking you right now.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그것 하나입니다.

Why? It is one thing because of selfishness of human race.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의 욕심으로 돈 좀 더 벌자고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월호의 비극이 일어났고, 인간의 욕심으로 탄광사고도 일어났습니다.

Selfishness provoked the war,

And Selfishness made people wish more money, so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all the accident like Sewol and Coal mine explosion come from that





인간의 욕심, 그 이기심이 원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Selfishness, that is the one reason.

Do you think we can change the world?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을 근본적으로 좀 줄여볼 수 없을까요?

How can we reduce our selfishness fundamentally

자, 인간의 본성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의 제자 중에 고불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We need to see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re was Gao Buhai who was one of the student of Mencius in ancient China

이 사람은 인간은 참 어렵다, 복잡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강한 이기심이 있는 반면, 어떤 때는 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손 잡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협동심이 있다는 겁니다.

He once said that human being is so difficult, complicated and hard to understand

Because sometimes they are so selfish to protect themselves,

But sometimes they help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and try to understand.

So there is sprit of team work.

이타심이 있다는 겁니다.





He meant altruism.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 뭐가 뭔지 모르겠다, 콤플렉스다.

But someone said where those are come from. It is a complex

찰스 다윈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진화는, 생물의 진화는 두 가지 과정이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가 일어난답니다.

Charles Darwin told that evolution of human being and creatures have two kinds of process.

If environment changes, mutation starts to adapt the changes

환경이 변하니까, 물속에서만 살기 어려우니까 자꾸 위를 올려보다가 슬슬 아가미가 바뀌어서 폐로 바뀌고, 네발로 가다가 좀 편하게 하려니까 앞의 두 발을 포기하니까 두 발이 팔이 됩니다.

Environment changes, it is hard to live only in the water, so they look up

And the gill changed to lung to breath,

And (People) want to be more flexible, so they gave up using 2legs to walk from 4legs,

So, two legs change to hands.

다 변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변이가 되어서 그것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러면 그 생물은 진화한 것입니다.

It is all about mutation.

If creatures survive through the mutation we call it evolution.

그래서 진화의 핵심은 변이와 선택입니다.





So, the key of evolution is change and selection.

근데 거기다가 요새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노왁(Nowak)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협력이란 것이 추가된다.

However, these days, Nowak, the professor of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said that cooperation is added to them.

40억년 지구 역사상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지금 인류가 오기까지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물론 변이와 선택이겠지만 거기에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From four billion years ago, the smallest microorganism throughout the history of earth to the mankind today, the most important keyword have been mutation and selection but it was impossible unless there is cooperation.

사실 인간만 봐도 미개했던 원시인들이 어떻게 지금 인류가 되었을까요?

Infact, in the case of human, how the uncivilized tribe have become the mankind today?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힘 센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악어처럼 물 속에서 수영 잘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They are not stronger than the tigers and lions ,they don't fly like the eagles, and they can't swim well like the alligators.

Then, how they were able to survive?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같이 협력을 합니다.

둘이, 셋이 같이 사냥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지키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 됐습니다.

To survive, they cooperate. More than two people hunt together, share their food, protect each other and raise their children together.

As a result, They became the mankind today.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인간은 강한 이기심이 있는 반면 강한 이타심 역시 갖고 있다, 그런 반증입니다.

What it means is that humans are very selfish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altruistic.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타심과 이기심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저울의 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기심과 이타심 이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이루는 그 점으로 갈 수 없을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Then, now, what do selfishness and altruism do?
We asked before. Can they change the world?
Can we achieve the balance between selfishness and altruism?
We asked.

그렇습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Yes, we can. There is an answer.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과 이타심 두 개가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ICT입니다.

As long as the human nature have both selfishness and altruism, we can find the answer there. It is ICT.

역사는 변합니다. 역사는 변하는데 항상 반복을 합니다,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역사랑 지금 역사랑 비슷합니다.

History is changing. History changes but it is always repeated, not evolved. The old (or ancient) and ongoing history is similar.

그것은 역사 한 쪽으로 극단으로 가면은 다시 이 쪽으로 오고 또 이 쪽 극단으로 가면 또 다시 갑니다. 중간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The history has gone from one extreme to another.

And then it went to the other extreme. It doesn't stay in the middle.





역사는 절대 서있지를 않아요. 움직입니다.

The history doesn't stand still. It changes.

근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 크게 갔다가 크게 오고 이럽니다.

However, it doesn't just move back and forth. It goes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지금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기심이 강한 쪽으로 왔습니다.

Now, it is on the left side and it comes to the side that is affected by strong selfishness.

이것을 그냥 두면은 아마도 혁명이나 전쟁이나 이런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If we let this go, it can be changed by aggressive means like revolutions or wars.

그러나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답은 ICT, 이것으로 우리의 답을 찾자, 그런 것입니다.

However, we can find the solution by ICT, which I came up with as an answer.

자, 지금의 ICT는 무엇이냐?

Now, what is ICT of today?

컴퓨팅 파워가 30년 전하고 영 다릅니다.

30년 전보다 컴퓨팅 파워가 100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Computing power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30 years ago.

It is a million times faster than 30 years ago.

1968년에 미국이 달나라에 인간을 보냈습니다.

그 때 NASA가 가졌던 전체 총 컴퓨팅 파워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의 컴퓨팅 파워만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달나라에 훨씬 쉽게 갔을 텐데요, 그죠?

In 1968, the U.S. sent human to the moon.

At that time, the total computing power

that NASA had was worse than the computing power of cell phone you have now.

It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f they had have cell phones,





they would have sent human to the moon more easily.

그런가 하면 지금은 IT가 스마트 & 모바일 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됩니다.

But, now, IT has become smart and mobile.

We can use them at any time, and anywhere.

옛날에는 전화 한 통 자기 여자친구한테 하려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같이 쓰니까 전화를, 몰래 부모님 쪽 플러그를 빼고

내 방에서 이불 속에서 전화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In old days, the whole family shared one telephone.

When they wanted to make a phone call to their girlfriend,

they took the plug out, which was connected to their parents' room, to avoid parents nagging. Then, they talked on the phone under the blanket in their room.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젠 이거 갖고 못 하는 게 없어요.

Now, they don't need to do that. It became smart.

We can do everything with this.

내가 맛집도 찾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지하철도 이걸로 타고, 버스도 이걸로 타고, 이걸로 신문, TV 다 봅니다.

그렇게 스마트해졌습니다.

I can find the famous restaurants. I can know where I am now.

I can take the subway, get on the bus, read a newspaper and watch TV with this.

It became smart like this.

또 지금은 연결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Network Society.

Also, we live in the connected society now.

CNN이 한때 나는 수 천명의 리포터를 갖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10억 명이 요새는 리포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0억 명이 자기네 동네 이야기를 시시콜콜히 하루에도

수십만 건 올려대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The CNN used to say that it had thousands of reporters





but these days one billion people are working as reporters. One billion people post what happened in their town all day long.

또 원한다면 5분 내로 10억 명 누구하고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SNS로 대통령하고도 직접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Also, if you want, you can contact with anyone of one billion people within 5 minutes. You can talked with the president via SNS.

자, 이런 ICT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울의 추를 좀 바꿀 수 있겠는가?

Then, how does the ICT achieve the balance?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와엘 고님(Wael Ghonim)이라는 젊은 청년이 시위대에 맞는 자기 친구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A young man named Wael Ghonim put the picture of his friend who is beaten by demonstrators on the SNS in Egypt

 $(00:19:12\sim00:24:57)$

반향은 엄청났습니다.

It created a huge sensation.

그 다음날 10 만 젊은 군중들이 카이로 시내를 덮습니다.

The next day, the downtown in Cairo was crowded with one hundred thousands of young people.

그 결과는 30 년 있었던 이집트의 독재가 종말을 고했습니다.

And it came to an end of 30 years of autocracy in Egypt.

이 젊은, 이 젊다기보다도 어린 아이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 10km를 걸어야 합니다.

This young, no, rather than young, this little child has to walk 10 kilometers every day to get water.





매일 10km씩 걷습니다.

He walks 10 kilometers every day.

가다가 또 없으면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If he cannot find water, he has to drink dirty water.

결국 질병과 여러 가지 건강상 나쁜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As a result, he is afflicted with all kinds of diseases.

이에 세계은행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So World Bank created a program for this And started digging wells.

그리고 그 동네 전체에다가 7 천 개의 우물을 파서 우물의 위치를 앱에다가 올려, 웹에다가 올려놓습니다.

They dug seven thousand wells all over the village And put the locations of wells on the App, on the Website.

이제 이 어린애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좋은지를, 소위 물이 좋은지를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Now, these kids know where they should go.

They know where they can find clean water.

Now, they no longer suffer from diseases.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And I hope I can have something like this.

A program which shows jobs
throughout the world at once.

이렇게 되면 제가 월남에 베트남에 갔더니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When I went to Vietnam, they had more motorcycle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전부 다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Everybody had their own motorcycles.

아마도 베트남 오토바이 수리공이 세계 제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hus, I think that Vietnamese motorcycle mechanics may be the best in the world.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 오토바이가 다 있으니까 잘 고치죠.

그들이 다른 데 가면 아마 좋은 보수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They are good at it as they have motorcycles from all over the world. If they go to somewhere else except Vietnam, they could get well paid.

인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손재주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아리 감별사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Software engineers in India, it is all about the old days.

Some of our skillful men

have gone abroad as chicken sexers.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job opportunity가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다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If all these job opportunities of the world are shown to all of you,

I guess you will not complain about not having enough jobs in Korea.

여러분들은 훨씬 넓은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와,

여러분이 원하는 보수를 받고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You may be able to go to a much wider world you wanted to the exact position you wanted with pays as much as you want.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 assume this kind of program will come out soon enough.

저는 이것을 정보와 기회의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nd I call this information and opportunity sharing.

ICT는 정보뿐 아니라 기회를 나누게 해줍니다.

Not only information but also opportunity is being shared through ICT.

information opportunity의 나눔이야말로

젊은이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It is share of information opportunity that young people really need.

이것은 우리나라 황둔마을입니다.

황둔마을이 칠갑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

10 년 전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Hwangdun village of Korea.

It is a villiage located at the foot of Chilgap Mountain

And the story goes back to 10 years ago.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This is a story of my own experience.

10 년 전에 인터넷이 나와서

황둔마을에 있는 사람이 좀 깬 사람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 years ago when the Internet access became available,

One brilliant person

made an online website and posted this:

우리 황둔마을은 해발 몇 백 미터이다.

물도 못 주고, 비료는커녕 물도 못 준다.

그래서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지만 맛은 기가 막히다.

맛은 무슨 약초 같다.

오이, 호박, 당근, 배추 뭐 이런 것 판다.

Hwangdun village is hundreds meters above sea level.

We cannot water enough on the crops, let alone fertilizers.

So our products are bad-looking, but they are absolutely delicious.

They taste like some medicinal herbs.

We sell cucumber, pumpkin, carrot, cabbage and things like that.

황둔마을에 일년에 트럭이 한 두세 번 옵니다.

와서 있는 것 가져가고.

Trucks come two or three times a year to this village And take the crops.





이렇게 다들 가난하게 살다가

그거 한 번 나니까

그 다음날 트럭이 50 대가 들어오는 거에요.

People there were this much poor.

Then, after the website was created and a posting made,

Fifty trucks came in the next day.

서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강남에서 고랭지 유기농 뭐 해서.

They came from Seoul.

Especially from Gangnam

To look for alpine, organic crops.

들어오자마자 그냥 묻지도 않는데

밭에다가 콱 그냥 자기 팻말을 꽂습니다.

이거 무조건 내 꺼.

As soon as they came in, they put up their signs on the field marking their ownerships.

황둔마을 주민들이

가구당 월 80 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It was the moment when villagers of Hwangdum gained eight hundred thousand dollars of monthly revenue per household.

ICT는 이런 가치를 줍니다.

ICT gives this value.





Airbnb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어디 외국에 여행할 때

그 지역에 어떤 집이 비었거나 방이 비었거나 한 것을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As you know about Airbnb, It is a service which rents

Vacant rooms or houses

When you travel abroad.

물론 그 사람도 집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나도 가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Of course, it is good for both the renter who can make use of the houses And the traveler who can use accommodations at a reasonable price.

Zipcar는 자동차를 그렇게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Zipcar is such a service that rents a car in that way.

그야말로 가치의 공유입니다.

It is literally a value share.

(00:24:20)제가 한 슬라이드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I talked about one slide first.

장애인 이야기입니다.

It is a story about the disabled.

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두드림이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a service called "Do-dream."

사실 두드림 서비스는 우리 유플러스랑 같이 해서 제가 내놓은 슬라이드이기도 합니다마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꿈을 모읍니다.

In fact, We, LG U+, work with "Do-dream service" together And that is one reason that I present this slide here.

꿈을 모아서 그걸 사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We gather dreams, make them into an apple And put it on the website.

파란 사과입니다

It is a blue apple.

00:24:57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장애인이

어떠어떠한 꿈을 갖고 있다.

You can find out their dreams in the apple.

난 바다에 가고 싶다.

난 야구장에 한 번 가고 싶다.

난 바이올린을 잘한다. 레슨을 받고 싶다.

For example,





I want to go to the sea,

I want to go to the ball park,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so I want to take a violin lesson.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에

기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과가 점점점 빨개집니다.

You can donate for the person

who you want to donate for.

The more you donate,

the more the apple turns red.

나중에 사과가 필요한 경비가 다 되면,

빨간 사과가 되면 사과를 땁니다.

그 장애인의 꿈을 이룹니다.

When your donation becomes enough,

when the apple becomes red,

it will be harvested.

His dream will come true.

나눔입니다.





가치의 나눔입니다.

It is a sharing,

value sharing.

여기에 장애인들이 요새는

머릿속에 칩을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

Many handicapped people put a chip

into their head these days.

그래서 휠체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 그럼 서고 그렇게 합니다.

So a wheelchair can move as they think.

If you think 'go right', it goes right.

It you think 'stop', it stops.

그들은 이제 가정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do house chores and everything.

스티븐 호킹이 컴퓨터 없는 나라에 있었다면

무엇이 되었을까요?





What if Stephen Hawking lived in a country

where there is no computer,

what do you think he is doing now?

서울대 이상묵 교수가 교수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불수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휠체어와 컴퓨터가 달려있는 것으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Professor Sang-muk L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in an accident.

But even now, he lectures at his university

using a wheelchair with computer.

월 스트리트에 가면 신순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There is a man named Soon-Kyu Shin on Wall Street.

이 양반이 10살 때 피아노를 좀 치다

점점 눈이 나빠집니다. 악보를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이 멉니다.

He played the piano when he was 10 years old.

His eyesight was going bad at that time,

So he memorized all the piano scores.





But finally he has lost his eyesight.

이 딱한 사정을 들은 미국의 독지가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He was raised by an American benefactor who knew his pitiable circumstance.

워낙 똑똑해서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 심리학 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MIT에서 석사박사가 돼서,

그래서 월 스트리트에 가서 합니다.

He was so smart that he graduated at the top of his high school.

He got a bachelor's degree in psychology from Harvard.

He got a master's and a Ph.D. degree from MIT.

Finally, he has came to Wall Street as an analyst.

이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듣습니다.

He can't see.

So he listens.

다른 사람은 그래프를 딱 보면 금방 아는데





그걸 들으려면 듣는 속도가

남보다 네다섯 배 빨라야 됩니다.

Other people can see,

so they know about graphs easily

but he has to listen instead of seeing.

So his ability to listen should be 4-5 times

better than other people's.

우리 같으면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네다섯 배 빠른 영어를 막 알아들어야 되니 고생이 많죠.

Even we have a hard time to listen to English, it should be tough for him to listen to English which is faster 4-5 times.

그러나 그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 Top 10에 듭니다.

But anyway, he is now doing well.

He is in the top 10 in the whole country.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ICT 프로그램이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 says to people,

"I'm happy because of ICT program.

Don't give up and pray."

이러한 가치의 나눔, 이것이 중요합니다.

This, value sharing, is an important thing.

제가 시간을 조금...

I want you to spend a little time for me.

One by One이라고 있습니다.

I wonder you have heard about 'One by One'.

One Dollar per Day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One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은 신발을 하나 사면

그 신발을 아프리카 난민 학생들,

어린이에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There are programs called

'One Dollar per Day' and 'One for One'.

When you buy a pair of shoes,

you can give them for refugee students and children



마음의 나눔을 하는 인프라를,



in Africa by this 'One for One' program.

구매자가 기부자가 되는 겁니다.
A purchaser becomes a donator.
A purchaser becomes a donator.
여기 휠체어가 있는데,
남산도서관에서 난 수원을 가야 됩니다.
Here you can see a wheelchair.
I want to go to Suwon from here Namsan Library.
내 휴대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태워줍니다.
I talk on my cell phone
then a volunteer around here picks me up.
이것은 mind sharing입니다.
마음의 나눔입니다.
This is mind sharing.
It is a sharing in mind.
자, ICT가 이런 정보, 기회, 그리고 가치,





이제 ICT는 누워야 됩니다.

So now ICT, as infrastructure sharing information, opportunity, value and mind, should lie down.

ICT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누워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ICT should act as a bridge

to connect everything lying.

It can not grow alone.

미래는 더 밝습니다.

Future will be more brighter.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훨씬 더 큰 봉사를 할 수가 있고

With IoT, Big Data and Cloud and so on,

you can volunteer for bigger occasions

훨씬 더 잘 남을 협력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nd bridges to make better cooperation can be built.





지하철 승객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지하철과 홈 사이에

발이 빠졌습니다. 못 뺍니다.

There is an old man who is a subway passenger.

One of his leg felt into the gap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train by his mistake.

한 사람이 차량을 밉니다. 안 움직이죠.

One person pulls the train but it does not work.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밉니다.

또 안 움직여요.

A person next to him watches him and he pulls it too.

But the train does not move at all.

세 번째 사람이 같이 밉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밉니다.

The third person pulls the train and then

all the people gather round the train to pull it.

드디어 33톤짜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을 빼냅니다.

Finally the 33 tons of train moves.

The old man picks his leg out from the gap.

여러분, 사회지도층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먼저

이기심을 벗어난 이타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verybody,

the leaders of the society should act first.

They should act first with noblesse oblige and altruism restraining on selfishness.

그리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같이 따를 때

세상은 움직입니다.

When they do and you follow them, the world can change.

혼자의 꿈은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입니다.

A dream for an individual is just a dream but that for everyone is reality.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저울의 추를 옮길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When we shift weights in a balance scale

together, it will be successful.

We can change the world.

한번 다 같이 바꿔보십시다.

감사합니다.

Let's try to change the world together.

Thank you.